

# 광양시,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업무협약

### 곡성·구례·하동군 등 4개 시군과 대규모사업 공동 발굴·추진 의지 다져



광양시는 4일 오전 10시, 광양을 비롯한 구례, 곡성, 하동 등 섬진강권 기초자치단체 4개 시군이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각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협약식은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4개 시군은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관광정책을 하나의 관광루트로 묶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왔다.

그 결과, 업무협약서에 역사·문화적 전통 상호 존중, 관광자원 공유, 대규모 관광발전 프로젝트 추진 등 섬진강권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는 의지와 약속을 담았다.

시는 작년 하동군과 함께 섬진강 중심의 공유관광 콘텐츠 개발, 섬진강 따라 한 바퀴 등 '경·전 문화 공유마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곡성과 구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은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한다"며, "섬진강은 영·호남 3개 도와 14개 시·군을 아우르며 흐르는 남도의 젓줄로, 오랫동안 영호남의 우의를 다지는 국민 대통합의 출발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화축제, 산수유축제, 기차마을, 벚꽃길, 재첩, 밭골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섬진강권의 번영을 위해 4개 시군이 힘과 지혜를 모아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4개 시군은 지난 1월 27일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를 열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오는 2월 중 실무회의를 구성해 성공적인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멕가이버 공작소



잡월드 조감도

## 순천시, 시민 체감형 일자리 정책 전환

순천시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취업률이 감소하는 등 지역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실물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021년 한해 1만 5천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 코로나19 대응 및 그린·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추진

순천시는 터미널, 역, 시청 등 다중이용시설 열화상카메라 체온체크, 코로나19 방역활동, 예방접종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택트 산업 전환에 따라 인공지능, 드론, 4차산업 분야 관련기업, 비대면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 인력양성 기업, 신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 ICT 관련 기업에 청년일자리 지원하고 녹색산업 관련기업, 에너지 신산업 등 Eco-Green 산업 분야에 맞추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 ▶ 3대 오아시스 등 신성장 산업·경제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순천 창업정책 집적화 및 창업원스톱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창업기업의 중국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한중창업혁신센터, 순천창업진흥원 발족 등 순천형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설·자금·운영 체계를 갖춘 창업 지원 정책 추진한다.

순천만 아시안 조성 운영에 따른 친환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천연물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순천만 잡월드,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VR제작거점센터 등 미래산업 일자리, 발효식품센터, 마그네슘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3대 오아시스와 같은 신성장 산업·경제 분야 일자리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한류 성장 산업인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을 도시 브랜드화

### ▶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강화

청년 구직활동 지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청년 희망통장사업, 대학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소상공인·강소·중소기업 연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개사업, 청년센터, 청년창업, 청년옷장 등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활동을 지원 등 청년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연계 보람일자리사업, 중년 함께 배움학교, 스마트 활용교육 등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 등 신중년층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한뼘정원 그린기동단', '순천 손질별치', '워터 휴실버카페', '달목호랑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자립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맞춤형 자활사업, 공공근로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도 제공한다.

### ▶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순천시는 생태 브랜드를 살려 호텔, 외국인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생활 SOC 인프라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시황을 끌고 있다.

2020년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외서농공단지 입주할 대상기업에 바이오산업, 지식정보문화산업 등을 추가하여 투자유치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향후 전개될 경제 트렌드와 정부 산업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여수시, 흥국체국관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마련

###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11월 전 70% 접종 달성

여수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팀과 여수시의사회를 비롯한 7개 유관기관이 포함된 지역협의체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조처는 유통·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해 여수흥국체국관을 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

종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의향조사 결과 93개소를 접수하고 현장점검과 교육이수를 통해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을 이달 안으로 지정해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등을 접종할 계획이다.

접종 목표는 11월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 24만 6000여 명의 70%인 17만 2200여 명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접종 대상은 만18세 이상 전 시민이다.

1분기에 요양병원·노인요양복지 시설 및 코로나19 치료기관 등을

시작으로,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연령상 접종), 노인재가복지 시설과 장애인·노숙인 시설의 입소자·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3분기에는 성인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성인(19~64세),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권오봉 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수급 관리, 접종 대상자 안내,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고흥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새해농업인 교육

고흥군은 오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2021년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농업인이 일 년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돕는 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품목별농업인 육성 및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 육성 등에 맞추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지난 1일 토양 과정을 시작으로 △식량작물(2월 2일) △축산(2월 3일) △마늘(2월 4일) △농업전망(2월 5일) △농촌자원(2월 8일) △농업경영(2월 9일) △고추(2월 15일) △유자(2월 16일) △야생대과수(2월 17일) 등 10개 과정을 추진하며 비대면 교육에 맞게 '네이버 밴드 라이브', '줌 클라우드 미팅'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읍면순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각 읍면에는 영농종합기술 교재 1,400부를 배부하여 농업인의 영농준비를 돕는다.

고흥군 관계자는 "새로운 농정과 농업기술에 대한 이해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보성군 득량면, 명산 가꾸기 '오봉산' 환경정화 캠페인



보성군 득량면은 3일, 입춘을 맞아 면 직원 20여명이 함께 갈바위와 구들장으로 유명한 오봉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명산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오봉산 쓰레기 줍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깨끗

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생태탐방로 주변, 등산로 등을 돌며 담배꽂이를 비롯하여 버려진 비닐, 페스티코폼 등 각종 쓰레기 2톤가량을 수거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시가지 청소활동도 펼치며 아름다운 득량면 만들기에 앞장섰다.

보성=김덕순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일, 활력, 물결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남지구 상가 상인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친환경마스크